

자료제공: 2024. 3. 21.(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1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02-2133-3910
교육지원정책팀장	유제우	02-2133-3912
교육플랫폼기획팀장	조원희	02-2133-9277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learn.seoul.go.kr 상단 공지사항 메뉴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12쪽

교육사다리 복원 서울런 통했다.. 올해 682명 대학 합격·전년 대비 220명↑

- 서울시,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대학합격자 대폭 증가 만족도 높아
-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하는 서울시 '약자외의 동행' 대표사업, 미래세대 대상 선제적 투자 의의
- 서울대 등 11개 대학교 및 의·약학계열 등 합격생 122명, 전년 대비 56.4% 증가
- 학습시간 1인당 4360분 → 6916분(59%↑), 95%는 '입시준비 후배에게 추천할 것' 응답
- 올해 시학습진단 도입·맞춤형 문제 제시, 집중지원반 운영, 멘토링 확대 등 고도화 추진

과외 없이 서울런 수강만으로 수능 점수가 17등급이나 상승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몸이 아파 자퇴 후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 서울런을 만나 의과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한 사례, 우울감과 슬럼프로 고등학교를 휴학했지만 서울런 멘토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아 복학한 학생...

올해도 '서울런'의 성과가 눈부시다. 지난해 서울런 회원인 고3 이상 학생 중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1,084명이며, 이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462명과 비교해 220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합격생 총 학습 시간도 평균 6,916분(약 115시간)으로 전년 4,360분(약 72시간)보다

59%가량 늘었다. 10명 중 9명의 회원은 입시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강의제공과 체계적 학습관리로 참여도와 실질적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서울시,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대학합격률·만족도 대폭 상승>

- 서울시는 「서울런 이용자 진로·진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4학년도 대학진학자 수와 서울런 참여도·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21일 (목)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2월 19일(월)부터 3월 6일(수)까지 고3 이상의 서울런 회원 중 온라인 설문 및 전화통화에 응한 1,2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수능응시자는 1,084명이었고 그 외 인원은 취업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시 대표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하나다. ’21년 8월 도입 후 취약계층 6~24세 학생을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와 1대 1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최근 조사(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4년 2월)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가 지출하는 교육비(63만 3,000원)가 하위 20% 가구(7만 6,000원)에 비해 8.32배 가량 많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이런 현실에서 서울런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교육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희망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이 차별점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런 진학 성과

<수능응시회원 1084명 중 682명 합격(전년비220명↑), 서울 내 11개 대학의약계열 등 122명>

- 설문에 응답한 고3 이상 ‘서울런’ 회원 1,243명 중 수능 응시자는 1,084명으로, 이 중 682명이 2024학년도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응시자 대비 63%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지난해 462명에 비해 220명(47.6%) 늘어난 수치다.
-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내 11개 대학과 의·약학계열·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계열 대학 진학 인원도 122명으로 지난해 78명보다 56.4% 가량 증가했다.
- 대학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서울대 12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0명 ▲서강대 4명 ▲성균관대 5명 ▲한양대 7명 ▲중앙대 15명 등이다. 특히 서울대(8명), 고려대(7명), 중앙대(10명), 한국외대(9명)의 합격생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 중복합격 제외 순수 대학진학 수치)

구 분	계 (23+24년)	합격인원(명)		증 감	비고
		'23년	'24년		
서울대	16	4	12	+ 8	
고려대	17	5	12	+ 7	
연세대	23	13	10	△3	
서강대	9	5	4	△1	
성균관대	12	7	5	△2	
한양대	9	2	7	+ 5	
이화여대	16	7	9	+ 2	
중앙대	20	5	15	+ 10	
경희대	22	11	11	-	
한국외대	13	2	11	+ 9	
서울시립대	20	10	10	-	
특수목적 계열	23	7	16	+ 9	의약학계열(9), 서울교육대학교(3), 사관학교(2), 과학기술특성화대학(2)
총 계	200명	78	122	+ 44	전년대비 56.4% 증가

* 모든 대학 합격수치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편의상 “한국 대학평가” 등을 참고해 일부 대학만 제공

- 합격생들의 학습 시간도 늘었다. 총 학습시간은 1인당 평균 6,916분(약 115시간)으로 전년 4,360분(약 72시간)보다 2,556분(58.6%↑) 길어졌다.

11개 대학 및 의·약학 등 특수목적계열 합격생은 1만2,066분(약 201시간)으로 전년 합격생 6,163분보다 많았다.

- 서울런 접속 횟수 또한 61회('23년 합격생)→71회('24년 합격생)로 16.4% 증가했고, 11개 대학 입학생들은 평균 106회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서울 내 11개 대학 등 합격생의 평균 학습시간과 접속 횟수가 평균에 비해 높은 점 등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또한 서울런 회원들의 자치구별 대학 합격인원 분석 결과 특정 자치구에 큰 치우침 없이 유사한 비율(1~6%)의 대학합격생을 배출해 낸 것으로 분석됐다.
 - 서울 전체 만 18세 인구 중 점유율 3%를 차지하는 강북구·도봉구가 서울런 대학합격생 총 비율 중 각각 5%를 차지했고, 인구비율이 7%대인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5%, 6%의 합격생 비율을 보였다.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경우 거주지역에 큰 영향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서울런의 목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시는 덧붙였다.
- 이외에도 서울런에서 자격증·외국어 강의 등의 도움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회원도 45명으로 지난해(16명)보다 29명 많아졌다. 취업처는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자가 11명, 대기업 취업자가 5명이었다.
-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수능 응시자 87%가 '입시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95%는 '입시 준비 후배들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학습관리와 정서 지지 등을 위해 1,710명의 대학(원)생을 선발·운영 중인 멘토링 만족도 또한 91.8%('23년 하반기 770명 응답결과 분석)로 아주 높았다.
 - 회원들은 학습관리(54.8%)는 물론 정서안정(29.8%), 진로설계(13.2%)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도 학습지도 능력과 자존감·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성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멘토로서 활동한다는 만족도도 87%가 넘었다.

서울런 개선 계획

<AI학습진단서비스 도입·맞춤형 문제 및 과정 제시, 집중지원반 운영 등 혁신 계획>

- 한편, 시는 도입 3년차에 접어든 서울런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다각도의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 학습 역량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 학습프로그램과 학습열의가 높은 학생 대상 집중지원반, 멘토단 다양화 및 정서지지 멘토링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먼저 서울런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AI) 학습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이 학습진단 결과를 반영해 80만개의 검증된 EBS 문항 중 개인맞춤형 문제를 제시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서 풀수 있도록 한다. EBS 해설 강의도 동시에 제공해 개념이해부터 돕는다.
 - 학습데이터 누적을 통한 월별 분석리포트도 제공해 학습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 안목의 섬세한 케어도 해준다.

▶ AI 학습진단: 실력진단→취약점 보완(EBS 해설강의 자동추천)→문제 반복훈련→실력향상 및 다음 난이도 문제 해결→월간 학습성취도 확인 및 학습전략 수립

- 학습 열의가 높은 회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한 ‘서울런 집중지원반’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집중지원반에 참여할 200여명에 대한 선발을 완료했다.
- 집중지원반 수강생들에게 기존 1인 당 연 5권 제공하던 학습교재를 최대 30권까지 지원하고, 수강가능 교과사이트도 확대(1개→2개)한다. 멘토링도 주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든든한 도움을 받도록 했다. 시는 학습 의욕이 높은 수강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강의 선택의 폭도 넓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EB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초 서울런에 EBS 사이트 연계를 완료했다. 방학기간에는 서울런 수강생 대상 EBS 명강사 초청 오프라인 특강도 개최할 계획이다.
 - 서울런 회원은 서울런에 접속 후 간편하게 EBS 사이트로 이동해 학습할 수 있다.
- 서울런 취지에 동감하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으로 학습비 지원, 학습능력 향상 행사도 개최한다. 최근 ‘우리금융미래재단’이 10억원을 서울런 회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 학습의욕이 높은 100명에게 연간 200만원 내외의 학습비 지원과 진로·학습캠프 개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함께하는 사랑밭’도 올해 3월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습비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총 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선호하는 수강생을 위한 ‘4050 시니어 멘토링’도 올해 처음 실시한다. 퇴직교원 등이 멘토로 나서 더 촘촘하게 내실있는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 우선 올해는 초등학생 회원을 대상으로 시니어 멘토를 매칭하고 수요 파악 후 중·고등학생 등으로 확대 계획이다.

- 또한 멘토링이 학습지도·진로탐색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심리적인 측면을 강화한 ‘정서지지 특별멘토’ 50명도 운영 예정이다. ‘정서지지 특별멘토’는 서울런 졸업생을 중심으로 우선 선발한다.

□ 마지막으로, ‘서울런 선순환 자원 봉사단’도 운영한다. 서울런을 통해 원하는 성과를 거둔 이용자들이 숙제 및 놀이지도, 한글학습 등 연령과 성향 등 특성에 맞는 봉사프로그램 참여하도록 연계해준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 지난 2년 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23년 12월) 서울런 이용 후 학교성적 ‘상’이 됐다는 응답이 21.1%p 증가(15%→36.1%)했고 학교성적 ‘하’ 비율은 28.1%p(33.2%→5.1%)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지출 감소한 가구는 42.1%였으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5만6,000원이었다.

※ 서울런 이용 경험 중고생(만13~18세) 635명, 이용자 학부모 331명(서울연구원, ’23.12월, 세부내용 “붙임3” 참조)

□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 속에도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런의 효과가 올해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확인됐다”며 “향후 서울런 수준을 높이고 서울런 참여자들이 다시 후배들의 멘토로 나서는 ‘희망의 선순환’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런 학생 사례** >

저는 23년도에 첫 입시에서 삼육대학교에 불합격을 했었고, 이후 서울런을 통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한양대생이 되었죠. 첫 대입 실패로 좌절하고 있을 때, 서울런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제가 생각한 한계를 훌쩍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채연(19세, 한양대학교 합격)

저는 학원에 따로 다니지 않고 재수하였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재수종합학원을 다니면서 더 좋은 교재와 선생님을 통해 공부하는데 저는 혼자 공부하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남들하고 비교하는 제 모습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런을 통해서 인강을 수강할 수 있었고 교재비도 지원해주니 자존감도 높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런이 없었더라면 재수에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유현 (20세, 서울대학교 합격)

저는 남들과는 다른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약한 폐를 가지고 태어나서 **학교에 다닐 때도 하교 후에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많았고, **저의 병원비 지출에 학원비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 서울런을 듣고 인터넷 강의를 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둡고 끝이 없던 터널에 빛이 온 것이죠.** 그렇게 저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병원 가는 차 안에서든, 집에서든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4년 수능에서 3개를 틀리고 S대 의과대학에 합격할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00(익명, S대 의과대학 합격)

'22년 서울런을 처음 이용할 때 **멘토링** 덕분에 확실한 학습 동기 부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학습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 **멘토 선생님이 저에게 딱 맞는 맞춤형 학습 목표를 설정해주셨고, 덕분에 자기 주도 학습 습관과 함께 수능 성적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제가 희망하던 대학인 연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김정연 (19세, 연세대학교 합격)

< 서울런 멘토 사례 >

매주 멘토링 시간마다 멘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방황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고, 너무 깊고 어두운 내면의 이야기가 나온 적 또한 있었다. **어머님께서 언젠가의 상담 과정에서 멘티가 멘토링 시간을 달가워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 멘티는 언젠가 말했다. 어른들과 이야기 할 때에는 벽이 있는 것 같다고. ... 어쩌면 나와 멘티가 하였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멘티가 세상을 향해 지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

- 멘토 조다인(20세)

하루는 **울기 직전의 상태로 수업에 들어와 놀랐다.** 허겁지겁 수업 자료를 끄고, 화이트 보드를 공유하며 상담을 진행했다. ... 부모님께도 선뜻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야기 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도 들었다. **멘티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처럼 흡인력 있는 강의력이 아님을 크게 실감했다. 진정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다.**

- 멘토 김○○('23년 수기공모)

여학생인 멘티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알려주었다. 부모님께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무료접종대상인지 확인한 후 꼭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 이제 곧 성인이 될 멘티에게 대학 생활에 꼭 필요한 한국 장학재단과 청년몽땅정보통, 에브리타임과 같은 사이트를 소개했다. ... 멘티가 무분별한 지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출 계획방법, 통장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 멘토 김혜민(22세)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더는 불안해하지도, 고민하지도 않게 되었다. 너무 행복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며 공감해 주는 **친구 같은 멘토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멘토링 시간을 가장 기다렸다. 그날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할지 고민하며 멘토링 숙제를 하는 시간이 좋았다. ...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멘토링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

- 멘티 강○○('23년 수기공모)

붙임 2

자치구 만 18세 인구비율, 서울권 합격생 자치구 비율 비교

거주지	자치구 만 18세 인구비율(%)	서울권 대학합격생 전체 자치구별 비율		서울권 서울 11개 대학 등 합격생 자치구별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종로구	1%	12명	2%	1명	1%
중구	1%	6명	1%	3명	2%
용산구	2%	10명	1%	3명	2%
성동구	3%	21명	3%	2명	2%
광진구	3%	23명	3%	4명	3%
동대문구	3%	26명	4%	5명	4%
중랑구	3%	24명	3%	5명	4%
성북구	5%	35명	5%	9명	7%
강북구	3%	31명	5%	2명	2%
도봉구	3%	32명	5%	8명	7%
노원구	7%	42명	6%	18명	15%
은평구	5%	34명	5%	5명	4%
서대문구	3%	18명	3%	2명	2%
마포구	4%	22명	3%	0명	0%
양천구	6%	39명	6%	2명	2%
강서구	6%	43명	6%	6명	5%
구로구	4%	28명	4%	4명	3%
금천구	2%	30명	4%	6명	5%
영등포구	3%	20명	3%	4명	3%
동작구	4%	26명	4%	2명	2%
관악구	4%	32명	5%	2명	2%
서초구	6%	18명	3%	4명	3%
강남구	7%	35명	5%	10명	8%
송파구	7%	44명	6%	10명	8%
강동구	5%	31명	5%	5명	4%
계	100%	682명	100%	122명	100%

붙임 3

서울런 성과(작년 12월 성과보고회 당시 발표)

□ 교육성과 및 사회경제적 효과 검증 (서울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 23.4.~10.)

〈 서울런 실태조사 결과 : 성적향상, 사교육비 감소 〉

- (교육성과) 성적 및 학습태도 향상으로 학교교육의 보완재 역할 검증
 - ✓ 학교성적 하위권 벗어난 학생 28.1%p, 수업 이해도 81% 이상 비율 37%p 증가
- (효과검증) 사교육비 감소, 지위 향상 기대 등 긍정적 파급효과 검증
 - ✓ 사교육비 감소 가구는 42.1%이며, 이들은 월 25.6만원씩 사교육비를 절약함

- (학습역량) 서울런 이용 후 학교성적 '상'의 비율이 21.1%p 증가(15% → 36.1%)
하고 학교성적 '하'의 비율은 28.1%p 감소(33.2% → 5.1%)함

구 분	서울런 이용 전			서울런 이용 후		
	상	중	하	상	중	하
내 용	15%	51.8%	33.2%	36.1%	58.8%	5.1%

- (수업이해도) 서울런 이용 후 학교수업 이해도 '81% 이상' 비율이 37%p
대폭 증가(9.1% →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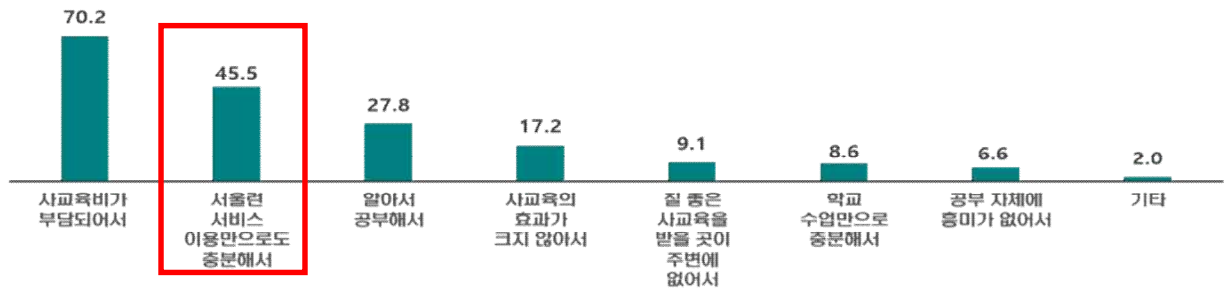
구분	서울런 이용 전			서울런 이용 후		
	~60%	61~80%	81%이상	~60%	61~80%	81%이상
내용	62.3%	28.7%	9.1%	11.8%	42.1%	46.1%

- (학습태도) 서울런 이용 후 수업태도, 자신감,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진로
성숙도 등 모든 영역에서 성과가 확인됨 (※ 5점 만점 척도)

구 분	전	후	구 분	전	후
수업태도	3.01점	3.65점	자 신 감	3.18점	3.95점
자기주도성	3.57점	4.05점	진로성숙도*	3.59점	4.01점

* 진로성숙도 : 진로방향 확신 정도(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장래희망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등)

- **(사교육비)** 서울런 이용 후 사교육 참여율은 7.5%p 감소(47.7%→40.2%) 하였고 사교육비가 감소한 가구는 42.1%로 평균 25.6만원이나 감소함
-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로 '서울런으로 충분하다(45.5%)'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음



- **(사교육 대체)** 서울런을 이용하지 못할 시 취할 조치로는 '사교육을 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이 42.3%로 사교육 대체효과가 확인됨
- 사교육 시킬 것이다(42.3%) > 자녀 혼자 공부(33.2%) > 잘모르겠다(24.5%)

- **(파급효과)** 교육격차 해소(90.9%)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82.8%)에 대한 기대 외에도 가정환경에 대한 긍정적 변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